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 ‘협력’

전주시·웹바이오텍EVC·차지인, 협약 체결...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병원·영화관 등에 설치·유지관리

전주시와 민간충전사업자들이 기업
의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ESG경영
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차
동차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기
로 했다.
시와 (주)웹바이오텍EVC, (주)차지인은
지난 5월 31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동차 충
전기(30kw)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주)웹바이오텍EVC와 (주)차지인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관과 병원, 주
차장 등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시
설 등에 30kw의 완속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한
다.
이를 위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영
화관과 병원 등은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와 (주)웹바이오텍EVC, (주)차지인은 지난 5월 31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동차 충전기(30kw)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
후 민간 충전사업자 등과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 유기적
인 협업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

는 완속충전기(30kw)의 경우 완충시
간이 3시간 정도 소요돼 아파트 등 기
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
기(7kw, 충전시간 10시간)에 비해 빠
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시설(30kw) 무상설치 대
상지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역 여부 등
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는 (주)웹바이
오텍EVC와 (주)차지인이 운영 및 유지
관리하며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안정적·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이번 협약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내연기관차
량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발판이 돼 우리와 미래세대가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청년 도시농부들, 도시농업 홍보

전주농기센터·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 부스 운영

전주시와 전주시청 청년 도시농
부들의 도시농업 알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센터장 김종
성)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
사업단 학생들은 지난 5월 31일 전
북대학교 캠퍼스 내 분수대에서
도시농업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
고,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
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주시농업기술
센터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
화사업단 학생들과 동반식물
을 활용한 생태텃밭을 조성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와
함께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청년
도시농부'를 주제로 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도시농업 홍보부스에서는
△성격(MBTI)에 맞는 반려식물 분
양 △산디인형 만들기 △텃밭에서
키운 껌잎 모호프 시식 등 지난 3
개월간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했던
도시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탈바



꿈매 선보였다.
청년 도시농부들은 약 3주 후에
는 생태텃밭에서 수확된 농산물들
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
누는 봉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홍유진 학
생(전북대 원예학과 2년)은 "프로
그램에 참여해 도시 속에서 농작
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한 농산물
을 활용해 도시농업 홍보부스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
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
한 신체와 마음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홍보 주간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제36
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9일까지 금연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87년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담배 연
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한 기
념일이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전주시 곳곳에서 대상별 다
양한 방법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에서는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 가
두캠페인이 펼쳐졌다. 캠페인에서는
금연뿐 아니라 절주, 비만 관리, 구강
관리, 치매 예방 등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보건소는 또 이날 송북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전북도청에서
도 건강체험관 등 직장인 대상 '찾아
가는 직장 금연캠페인'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
고 있으며, 신종담배의 출현과 청소년
의 흡연을 증가 등 변화하는 흡연환경
에 대응해 다양한 금연 홍보 사업을
연중 펼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교육 나서

전주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총 10회 교육

전주시가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
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전
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설실에서 총 10
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
문고업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
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
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
이 아파트 입주인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
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는 일반차
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
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



전주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
석한 결과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12
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
해부터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30
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638건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1월 560건, 2월 370건, 3월 290건, 4월
23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주요
불법 사례는 불법주차 또는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는 5
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한 공동주택 아

파트관리소장은 "전주시에서 실무 주
무관이 직접 친환경자동차법을 설명
해 주고 불법행위 및 과태료부과 예외
사례 등을 교육해주시 친환경자동차
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충전구역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은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앞으로도 그간 실무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
육과 주민홍보, 단속 등을 통해 제도
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운영

전주시가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
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
제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부모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자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이로서 전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중산어린이집과 전
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열방모아어린
이집, 한솔빛어린이집을 포함해 5곳으
로 늘어나게 됐다.
시간제보육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 가정이나 부모의 병원 이용
과 외출, 단기 근로 등의 사유로 급하
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용자는 평일(월~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정부 지원 3000원)만
내고 이용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



이사항(www.childcare.go.kr)과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1661-9361)에 사전 예
약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효자어린이
집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가정양육 중인 부모의 양
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